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대학 무용전공생의 인식도 조사

이지원* · 전민수**

- I. 서론
- II. 연구 방법
- III. 연구 결과
- IV. 논의

- V. 결론 및 제언
- 참고 문헌
- Abstract

I. 서론

본 연구는 무용학과 대학생의 치매에 관한 인식과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요구 수준을 파악하여 전문화된 무용교육의 방향과 취업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최근 치매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관련 연구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치매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무용 전문 교육프로그램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에 대한 전공생들의 인식을 선행적으로 점검하고자 한다. 이들의 치매에 관한 인식을 파악함으로써 예방적 교육에 관한 지지나 정책적 제안으로서의 직업 교육도 확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무용전공생들의 치매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고 이를 무용교육의 방안과 적용에 대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치매는 ‘노인의 만성질환 중 대표적 질환이다. 최근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치매의 유병률 또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¹⁾ ‘2020년에는 84만 명에서 2030년에는 127만 명, 2050년에는 약 271만 명으로 매 20년마다 2배 이상으로 증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²⁾ 치매는 ‘특정한 질환이나 진단에 의한 명칭이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 질환에 의해 발생하는 뇌기능의 전체적인 저하 상태를 뜻한다.’³⁾ ‘나이가 들면서 기억력 장애를 포함한 뇌의 기질적 병변에 의해 인지기능이 감소하게 되어 치매에 이른다.’⁴⁾ 일반

* 제1저자, 한국체육대학교 공연예술학과 부교수

** 교신저자, 한국체육대학교 체육학과 강사, minsul144@nate.com

- 1) 제남주, 박미라, 양현주, 김수연(2019), 치매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부양의식, 인지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4), p.101.
- 2)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2018)(윤미진(2019),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p.420 재인용.)
- 3) 권병인(2008), 대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 4) Song, J. A., T. K. Jim and H. J. Kim(2012), Educational needs on behavioral and psychological symptoms of dementia among certified nursing caregivers in nursing hom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Integrative Medicine*, 2(2), pp.21-29(윤미진(2019),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p.420 재인용.)

적인 치매의 위험 요소는 고령, 유전, 여성, 교육의 부족과 연관성이 높으며 치매 발생과 관련하여 결혼 생활을 유지 못 하는 사람은 2.4배, 흡연자는 1.5배, 두부외상의 과거력이 있는 사람은 2배, 우울증이 있는 사람은 3배 더 위험하다는 발표도 있다.⁵⁾

무용은 특별히 치매를 조기에 예방하고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준다. ‘신체의 조화로운 발달과 움직임을 통해 창조적 삶을 영위하게 한다.’⁶⁾ 그리하여 많은 학자들은 춤과 치매와의 상관성을 연구하며 치매 예방 및 관리를 위한 무용프로그램을 제안하고 있다. 사실 이에 관한 수준은 연령별, 능력별 차이가 있겠으나 치매 진행 여부에 따라 기본, 중급, 고급 등의 프로그램 개발도 필요한 시점이다. 많은 전공생들이 예비적 무용교사라고 본다면 이들을 위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치매의 기초적 교육이 선행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치매는 누구에게나 치매에 대한 인식이 있을 때 보다 효과적이다.’⁷⁾ 그리하여 치매 예방 및 관리는 무용교사들이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을 때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리하여 전공생들의 현 지점을 정확히 살피기 위해 본 연구가 요구된다.

‘대학생들은 미래 사회에서 주요한 주체로서 노인 부양에 주도적 역할을 하여야 하며 고령화 사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받게 될 대상’으로 이들이 바라보는 치매에 관한 시각은 매우 중요하다.⁸⁾ 특별히 무용전공생들은 무용수업에서 노인을 만날 가능성이 높다. 대학생 시기에 형성된 가치관과 사고는 이후 치매에 대한 사고와 행동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고 이에 관한 인식을 점검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대학생들의 노인에 대한 공경심이 약해져 가는 시대에 증가하는 치매노인 문제를 이해하고 노인교육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무용을 통한 복지 차원의 기초적 작업을 감당하는데 있다.

연구의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무용 전공생들의 일반적 특성은 어떠한가?

둘째, 무용 전공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은 어떠한가?

셋째, 무용 전공생들의 치매와 관련한 교육과 취업 그리고 정책에 관한 인식은 어떠한가?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지금까지 치매에 관한 무용 관련 연구는 프로그램에 관한 설계와 적용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무용전공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치매 연구는 이지원의 연구⁹⁾가 유일하나 이는 치매를 대하는 태도 부분에 국한되었다. 그리하여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치매에 관한 인식을 점검하고 이를 통해 치매 전문 무용교육의 방안을 예측하고자 하기에 사회적으로 치매예방교육이 중시되는 이 시점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교사의 양성과 취업의 방향, 그리고 정부 차원의 지원이 요원한 현 시점에, 본 연구가 체계적 기획으로 제안할 수 있는 무용교육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

5) 이주연(2014), 중장년 여성의 치매인식도와 치매예방 교육요구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8.

6) 김윤희(2005), 노인 복합무용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5, p.32.

7) 이주연(2014), p.7.

8) 윤미진(2019), p.420.

9) 이지원(2020), 치매노인에 관한 무용학과 대학생의 태도인식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pp.137-151.

II.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이 연구에서는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매와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였다. 이를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학교 무용전공생 102명을 대상으로 2020년 9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과 연구 내용을 공지한 뒤 자발적 참여 의사가 있는 학생에게만 설문을 실시하였다. 이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설문에 대한 응답이 없는 경우) 대상자 2명을 제외한 100명에 대한 설문을 회수하였다.

2. 조사 도구

설문은 인구학적 특성(성별, 학년, 과거 노인 동거 여부, 현재 동거 여부)과 치매에 관한 기본 관심을 살피기 위한 6개의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그리고 치매에 대한 인식 10문항과 무용교육과의 연관성을 둔 10문항을 1점에서 5점 척도인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다.

조사에 사용한 설문지는 선행 연구에 기초하여 설계하였다. 치매 인식은 치매에 대해 개인적으로 알고 이해하고 판단하는 것을 의미한다. 치매에 대한 일반적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권병인이 사용한 문항¹⁰⁾을 중심으로 적용하였으며, 일반 대학생의 결과와 무용전공생의 결과를 비교하여 논의하였다. 그리고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을 확인하기 위해 전문가 4인을 구성하여(치매 전문가 1인, 무용 전문가 2인, 문항개발 전문가 1인) 3회 전문가 회의를 거쳐 문항을 선별 및 수정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이를 통해 치매 관련 교사 양성, 취업, 정책 등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3. 자료처리 방법

이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자료처리를 실시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에 대한 인구학적 통계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치매에 대한 인식과 무용교육에 대한 문항의 응답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빈도분석은 Excel 2013과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III. 연구 결과

이 연구에서는 대학 무용전공생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구체적으로는 무용전공생들의 일반적 특성을 조사하기 위한 4문항과 치매에 대한 기본 정보를 조사하기 위한 6문항, 치매 인식과 관련된 10문항, 무용교육과 관련된 10문항으로 전체 30문항을 조사하였다. 이에 따른 결과는 아래와 같다.

10) 권병인(2008), 대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p.58-60.

1. 무용전공생들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남녀 비율에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의 수가 85%를 차지한다. 학년은 고른 분포도를 가지고 있어, 1학년이 24%, 2학년이 23%, 3학년이 24%, 4학년이 29%로 나타났다. 과거 노인과 동거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5%, 현재 노인과 동거하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3%로 나타났다. 97%의 학생이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연구 대상의 특성

변 인		N	%
성별	남성	15	15.0
	여성	85	85.0
학년	1학년	24	24.0
	2학년	23	23.0
	3학년	24	24.0
	4학년	29	29.0
과거 노인과 동거 경험 여부	있음	35	35.0
	없음	65	65.0
현재 노인과 동거 여부	있음	3	3.0
	없음	97	97.0

2. 무용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기본 관심

〈표 2〉는 무용학과 학생들의 치매 증세에 대한 관심 수준을 확인한 결과이다. 그 결과 치매 증세에 대하여 ‘알고 있다’라는 응답이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보통이다’가 35.0%로 나타났다. 무용학과 학생들의 치매 증세에 대한 관심도는 3.42점(5점 만점 기준)으로 조사되었다.

〈표 2〉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증세에 대한 관심 수준’ 빈도분석 결과

문항 내용	매우 잘 안다		알고 있다		보통이다		모르는 편이다		전혀 모른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치매 증세에 대하여 어느 정도 알고 있나요	6	6.0	45	45.0	35	35.0	13	13.0	1	1.0

〈표 3〉은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증상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노인들에게 치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이 53.0%로 높게 나타났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이 47.0%로 나타났다.

〈표 4〉는 무용학과 학생들의 치매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치매 치료가 가능한가에 대해서 ‘아주 그렇다’라는 응답이 6%로 나타났으며, ‘그렇다’라는 응답이 24%로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라는 응답은 5%로 나타났다. 그리하여 전체 30%는 치매가 치료 가능하다는 생각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치료 가능성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치매가 치료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5	5.0	25	25.0	40	40.0	24	24.0	6	6.0

〈표 5〉는 무용전공생들에게 치매노인의 부양 및 치료 주체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가족 친지’로 응답한 빈도가 51회(47.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는 ‘모두’ 33회(30.5%)로 나타났다.

〈표 5〉 ‘무용전공생들의 치매노인 부양 및 치료 주체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중복 응답 있음)

문항 내용	자기 자신		가족 친지		국가 사회단체		모두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치매노인을 부양하거나 치료해야 하는 주체는 누구인가?	10	9.3	51	47.2	14	13.0	33	30.5

〈표 6〉은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노인복지 정책 중 치매 정책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알고 있다’로 응답한 빈도는 25명(25.0%), ‘모른다’로 응답한 빈도는 75명(75.0%)으로 정책에 대한 응답은 ‘모른다’ 의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6〉 ‘무용전공생들의 노인복지 정책 중 치매 정책 존재 여부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문항 내용	알고 있다		모른다	
	빈도	%	빈도	%
노인복지 정책의 하나로 치매 정책이 존재하는 것을 알고 있다	25	25.0	75	75.0

〈표 7〉은 무용학과 학생들에게 가족이나 주위 사람이 치매에 걸려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은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이다. 그 결과 ‘있다’로 응답한 빈도는 9명(9.0%), ‘없다’로 응답한 빈도는 91명(91.0%)으로 나타났다.

〈표 7〉 ‘무용전공생들의 주위 사람이 치매에 걸려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은 경험 여부’ 빈도분석 결과

문항 내용	있다		없다	
	빈도	%	빈도	%
자신의 가족 혹은 주위 사람이 치매에 걸려 국가기관으로부터 도움받은 적이 있다	9	9.0	91	91.0

3. 무용전공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분석

〈표 8〉 ‘무용전공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문항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	7	7.0	23	23.0	37	37.0	29	29.0	4	4.0
2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	2	2.0	17	17.0	44	44.0	31	31.0	6	6.0
3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	11	11.0	37	37.0	41	41.0	11	11.0	0	0.0
4	치매는 내과, 정신과, 신경과 질환 등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생긴다	5	5.0	15	15.0	45	45.0	31	31.0	4	4.0
5	치매에 걸릴 위험은 나이에 비례한다	4	4.0	18	18.0	36	36.0	40	40.0	2	2.0
6	치매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	20	20.0	39	39.0	34	34.0	6	6.0	1	1.0
7	치매에 걸리면 시간 감각이 없고 장소를 헤매며, 사람을 못 알아본다	9	9.0	26	26.0	42	42.0	22	22.0	1	1.0
8	싱겁게 먹는 습관과 균형에 맞는 식사는 치매 예방에 좋다	0	0.0	7	7.0	41	41.0	41	41.0	11	11.0
9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 검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	0	0.0	3	3.0	28	28.0	40	40.0	29	29.0
10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 주면 도움이 된다	6	6.0	21	21.0	40	40.0	24	24.0	9	9.0

〈표 8〉은 대학 무용학과 학생들의 치매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나이가 들면 노화에 의해 누구나 치매에 걸린다’라는 문항에 전체 3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치매는 유전적인 요인과 관련이 있다’라는 문항에는 37%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남자가 여자보다 치매에 잘 걸린다’라는 문항에는 48%가 그렇지 않다고 응답하여 남자보다 여자가 치매에 잘 걸린다는 의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는 내과, 정신과, 신경과 질환 등 여러 가지 병에 의해서 생긴다’라는 문항에는 35%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치매에 걸릴 위험은 나이에 비례한다’라는 문항에는 42%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치매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라는 문항에는 59%가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지나간 일을 더 잘 기억한다고 보았다. ‘치매에 걸리면 시간 감각이 없고, 장소를 헤매며, 사람을 못 알아본다’라는 문항에는 2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는 의견도 3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싱겁게 먹는 습관과 균형에 맞는 식사는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문항에는 52%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 검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라는 문항에는 69%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마치

막으로 ‘치매노인을 위해서는 환경을 자주 바꾸어 주면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 33%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그렇지 않다는 27%의 응답과 미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9번 문항(규칙적인 생활과 신체 정기 검사는 치매 예방에 도움을 준다)이 ‘아주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8번 문항(싱겁게 먹는 습관과 균형에 맞는 식사는 치매 예방에 좋다)에서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6번 문항(치매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응답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분석

〈표 9〉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 빈도분석 결과

문항	문항 내용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아주 그렇다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빈도	%
1	춤은 치매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1.0	2	2.0	24	24.0	43	43.0	30	30.0
2	춤은 치매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1	1.0	4	4.0	22	22.0	43	43.0	30	30.0
3	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	1	1.0	3	3.0	18	18.0	43	43.0	35	35.0
4	춤은 치매노인들의 인지 작용과 신체 작용 그리고 사회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	1	1.0	4	4.0	23	23.0	37	37.0	35	35.0
5	치매환자를 위한 춤교육이 국가 시설이나 정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	1	1.0	5	5.0	27	27.0	37	37.0	30	30.0
6	사회에 나아가 치매노인들을 위한 무용교사로 취업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	5	5.0	7	7.0	35	35.0	33	33.0	20	20.0
7	치매환자만을 위한 무용교사로서의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2	2.0	2	2.0	33	33.0	36	36.0	27	27.0
8	치매 전문 병원에 무용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1	1.0	4	4.0	31	31.0	39	39.0	25	25.0
9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수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어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	1	1.0	3	3.0	25	25.0	44	44.0	27	27.0
10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관한 지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1	1.0	2	2.0	22	22.0	39	39.0	36	36.0

〈표 9〉는 대학 무용전공생들의 치매 관련 무용교육에 대한 인식을 조사한 결과이다. ‘춤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7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고, ‘춤은 치매환자에게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7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음을 안다’라는 문항에서도 78%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춤은 인지작용과 신체작용 그리고 사회적 소통에 도움이 된다’라는 문항에서 72%가 그렇다고 답하였고, ‘치매환자를 위한 춤교육이 국가 시설이나 정책으로 활성화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는 67%가 그렇다고 응답하였다. ‘사회에 나아가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교사로 취업 활동을 할 의향이 있다’라는 문항에 53%가 그렇다고 답변하였다. ‘치

매환자만을 위한 무용교사로서의 프로그램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문항에는 63%가 그렇다고 응답하였고, '치매 전문 병원에 무용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결과는 64%에 달한다. '치매노인을 위한 무용수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어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1%를 차지한다. 마지막으로 '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 치매환자에 관한 지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라는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75%로 나타난다.

결과적으로 10번 문항(전문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치매환자에 관한 지식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에서 '아주 그렇다' 응답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렇다' 응답은 9번 문항(치매노인을 위한 무용수업이 국가적으로 확대되어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이 취업할 수 있는 장이 마련되어야 한다)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반면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빈도가 가장 높은 문항은 6번 문항(사회에 나아가 치매노인들을 위한 무용교사로 취업 활동 할 의향이 있다)으로 조사되었다.

IV. 논의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하는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기 위해 진행되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분석 결과를 논의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치매에 관한 기본 관심, 두 번째는 치매에 대한 인식 수준, 세 번째는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내용이다.

먼저, 치매에 관한 관심도는 일반 대학생들과 비교할 때 비교적 높은 편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응답자의 51%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권병인이 조사한 일반 대학생 연구결과(50.1%)¹¹⁾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를 정상적 노화현상이라고 보는 측면'도 그렇다는 답변이 일반 대학생의 37.1%보다 높은 47.1%인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 치료가 가능하다'는 답변은 30%로, 일반 대학생이 49.4%인 것에 비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치매노인의 부양 및 치료 주체에 관한 문항에는 가족 친지라는 답변이 47.2%로 높게 나타나 치매에 관한 가족의 부담이 높은 것으로 판단했다. 일반 대학생의 결과와 비교하면, 일반 대학생은 가족 29.1%, 국가 단체 16.5%로 부담하여야 한다고 답변하였기에 국가 단체에서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일반 대학생의 경우 더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김미혜는 '가족이 일차적 지지 체계로서 노인을 부양해 왔다'고 연구한 바 있는데,¹²⁾ 치매노인의 부양 및 치료에 있어서도 여전히 가족의 기능 수행이 높은 것으로 학생들이 인식하고 있었다. 치매 정책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한다는 답변이 75%로 일반 대학생이 응답한 70.1%와 소폭의 차이를 지닌다. 많은 대학생들이 노인복지 정책에 관하여서는 잘 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기관으로부터의 도움을 받은 적이 있는가'에 있어서 무용전공생은 경험한 바가 없다는 답변이 91%에 달하였고 노인과의 동거가 낮은 비율이라는 측면을 고려한다면 핵가족 시대에 노인을 접하지 못한 학생들이 치매에 관한 증세나 현상을 이해하기 어려울 뿐

11) 일반 대학생으로 명명하는 조사는 권병인이 연구한 2008년도 연구에 근거한 것으로 동일한 치매인식 도구로 측정하였음을 밝힌다.

12) 김미혜, 강인(2002), 여성노인의 회상에 의한 한국근대사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pp.1-19.

아니라 정책에 관한 관심도 낮을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물론 이를 통해 치매에 관한 공공관리 및 지지가 여전히 전체적으로 확대되지 못했음을 파악할 수 있다. 권병인의 연구에서도 ‘치매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는데¹³⁾ 치매가 당사자와 가족들만의 문제라기보다는 국가적인 지원과 대책이 필요한 문제라는 점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확충할 필요가 있다.

두 번째로, 무용전공생의 치매 인식은 항목별로 차이가 있지만, 일반 대학생의 결과보다는 전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자가 여자보다 더 치매에 잘 걸린다’라는 문항에 대한 응답은 그렇지 않다가 48%를 차지하여 일반 대학생이 남자가 잘 걸린다고 응답한 34.1% 의견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이와 관련한 연구 결과로 ‘여성이 남성보다 치매의 발병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난다는 보고’가 있는데,¹⁴⁾ 이는 여성의 수명이 더 길고 치매 인자로 작용하는 여성 호르몬에 관한 지식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치매에 걸리면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라는 문항에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59%를 차지하고 있어 일반 대학생이 응답한 47.4%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 외 ‘싱겁게 먹는 습관과 균형 잡힌 식사가 치매 예방에 좋다’라는 문항에 있어서도 52%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일반 대학생이 응답한 43.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규칙적 생활과 정기 검사를 통한 치매 예방’에 대한 문항에서도 무용전공생의 69%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일반 대학생이 응답한 57.6%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 문항은 무용전공생과 일반 대학생 모두 아주 그렇다고 답변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그 응답이 각각 29%와 19.7%를 차지한다. 반대로 그렇지 않다는 답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문항은 6번째 문항으로 ‘치매환자는 지나간 일보다 최근 일을 잘 기억한다’였다. 여기에서는 무용전공생이 20%, 일반대학생이 14.1%로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여 전체적으로 일반 대학생의 연구 결과 수치보다는 무용전공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치매의 증세와 증상’에 관련된 관심은 일반 대학생이 보다 높은 수치를 보이기에 무용전공생들에게 정확한 치매 지식을 습득하고 인지할 수 있는 의학적 근거에 기초한 올바른 교육이 요청된다 하겠다. 또한 중년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¹⁵⁾와 비교하자면 무용전공생의 치매 인식이 중년층의 치매 인식보다 조금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치매 인식 수준은 교육 수준이 높거나, 치매에 대한 정보를 많이 접할수록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하고 있어,¹⁶⁾ 연령에 따른 정보와 경험의 차이가 인식에 반영되었을 것으로 파악된다.

세 번째로, 무용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무용전공생은 춤이 가진 긍정적인 측면을 잘 알고 있고 치매 전문 교사의 양성과 취업 확대를 지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문항은 크게 네 가지의 축으로 나누었는데, 하나는 춤이 가지는 치매에 대한 긍정적 측면(1~4문항)이고 둘째는 치매 전문 무용교사의 양성(7, 10문항), 셋째는 무용교사의 취업 확대(6, 8, 9문항), 마지막으로 무용교육 정책 관련(5문항)이다. 전반적으로 1~4문항을 통해 무용전공생들은 춤이 가지는 치매 예방적 차원과 함께 춤이 가지는 장점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인들을 위한 인지적 측면과 신체적 측면, 그리고 사회적 소통 면에 있어서 춤이 긍정적인 작동을 할 것이라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7과 10의 문항을 살펴보면, ‘전문 무용교사의 양성이 필요하다’는 답변에 그렇다가 평균적으로 69%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무용교사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확대와 전문 교사를 위한 배움에 관한 기회를 요청하고

13) 권병인(2008), pp.58-60.

14) 송채훈, 김관호(2018), 건강증진운동이 노인 여성의 알츠하이머 치매관련 인자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3), p.1220.

15) 강혜정(2020), p.250.

16) 신정하(2014),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조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p.6.

있다. 이를 통해 치매를 위한 무용교육의 전문화와 특성화를 기대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다. 취업에 관한 질문에 있어서도 치매 전문 무용교사가 취업의 장으로 나아가야 하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이에 상응하는 치매 관련 인지 증진 교육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인이 치매노인들을 위한 무용교사로 활동할 의향이 있는가’의 문항에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은 53%로 타 문항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치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의 부족으로 인한 막연한 불안감이 참여 동기의 저하로 나타난 결과라 파악된다. 따라서 대학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치매에 관한 정보와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교사로서의 불안감을 완화시킬 수 있도록 교육적 노력을 감행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향후 ‘무용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치매 전문 교육과 비교과 프로그램을 통한 현장 경험의 병행으로 극복될 수 있을 것이라 파악된다.¹⁷⁾ 마지막으로 ‘국가정책으로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일반적 특성에서 파악한 것처럼 노인과의 동거 기회가 부족했던 대학생이 치매노인 관련 복지정책에 관해서는 잘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나, 정책적 지원에 관한 관심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춤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공생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향후 국가 시설과 정책적인 지원 방안이 마련되도록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2020년까지는 제3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수립되어 ‘치매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에서 편안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최종 목표를 가지고 지원을 수행하였다.’¹⁸⁾ 그러나 치매 예방과 관리를 위해서는 이제 서면적 대책이 아니라 일상에서 느낄 수 있는 지원과 대책을 마련하는 등 지금보다 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치매환자를 위한 무용교육의 확대는 무용교사가 취업을 확대하고 전 국민의 치매 예방 및 건강 증진을 도모하며 복지사회로 한 걸음 나아가갈 수 있는 방향이라 강조할 수 있다.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무용학과 대학생의 치매에 관한 관심과 인식, 그리고 치매 전문 무용교육에 관한 의식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루어졌다. 대학 무용전공생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무용교육의 실제적 방향과 지원, 그리고 대안을 마련하는 데 기초로 삼고자 한다.

첫 번째, 무용전공생들은 95%가 현재 노인과 동거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여 실제로 노인의 삶과 일상에 대한 경험이 부족할 것으로 보이나, 치매 인식을 비교하자면 일반 대학생보다 무용전공생이 다소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학생 간의 정당률의 편차가 발생하기에 이들의 인식도와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교육하여야 하겠다. 무용전공생들을 위한 차별화된 치매 기초 교육이 대학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두 번째, 무용전공생이 치매 전문 무용교사의 양성과 취업에 관한 긍정적인 방향을 제안하고 있어 이에 따른 교육적 대안도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학생들의 동기 부여를 높일 수 있고, 교육 욕구에 부응할 수 있는, 올바른 의학적 치매 기초 교육이 실행되어야 할 것이며 동시에 치매 전문 무용프로그램

17) 이지원(2020), 치매노인에 관한 무용학과 대학생의 태도인식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pp.102-103.

18) 김혜정(2020), p.246.

의 경험도 가능케 하여야 할 것이다. 사회적으로 치매 인구가 확대되는 현재 시점에 학부에서부터 다각도의 접근과 대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전공생의 치매 인식과 교육은 유의한 관계가 있으며 치매에 관한 인식이 높을수록 춤의 교육적 측면에도 긍정적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세 번째, 정책적 지원과 함께 전문인력양성을 위한 전공생들의 관심이 요청된다. 전공생들은 삶의 질을 높이고 치매 예방과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는 춤의 효과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정책적인 지원을 통한 치매 전문 무용교사가 양성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에 걸맞게 많은 전공생들이 치매에 관한 관심과 의지를 가지고 접근하여야 전문인력의 양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책적 지원을 통한 접근뿐 아니라 개인적 차원에서 노력과 접근도 필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기획과 요구도를 반영한 치매 전문 무용교사가 양성될 수 있는 방안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사 양성을 위한 치매 전문 무용프로그램이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무용교육에 관한 긍정적 인식이 확대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따라서 치매 관련 무용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일반인에게도 치매를 위한 무용교육의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무용은 치매의 예방에 도움이 되며 건강 증진에도 큰 효과를 지닌다. 춤이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함을 적극 홍보하여 보다 많은 이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하며, 치매와 관련하여 무용 전문 교육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다층적인 방향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건강을 회복시키고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아름다운 예술교육이다. 향후 지역사회와 국가의 감당하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무용교육과 관련한 심화된 정책이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이제는 치매 전문 무용교사의 양성 지원과 치매 전문 프로그램 개발, 그리고 취업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관심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반화하는 데 한계는 있겠으나,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본 연구는 무용을 전공한 특정 대학교 대학생으로 범주화하여 결과를 도출하였기에 이를 전체 전공생을 대상으로 일반화시키는 데에는 한계를 지닌다. 추후 대상자를 확대하여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는, 본 연구 결과에 대한 해석이 주관적인 방향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변수 파악과 표집 방법의 객관화를 통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가 무용전공생의 치매 인식에 관한 기초 자료와 교육적 지침이 되어 치매에 관한 의식 개선과 정책적 지원 그리고 적극적인 교육적 홍보에 미미하지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후속 연구로는 무용전공생을 대상으로 한 치매 기초 교육의 효과나, 전공생의 졸업 현황을 기반으로 한 치매 관련 취업시장의 대비와 대안, 혹은 사회복지 활성화를 위한 춤의 일반화 방안 등의 연구를 제안해 본다.

■ 참고문헌

- 김윤희(2005). 노인 복합무용 프로그램 만족도에 관한 연구. 『무용예술학연구』, 15: 31-48.
- 김혜정(2020). 중년층의 치매지식, 태도 및 치매예방교육 요구도. 『한국엔터테인먼트산업학회논문지』, 14(5): 245-253.
- 권병인(2008). 대학생들의 치매노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김미혜, 강인(2002). 여성노인의 회상에 의한 한국근대사에서의 시부모부양 경험에 관한 연구. 『한국노년학』, 22(3): 1-19.
- 송채훈, 김관호(2018). 건강증진운동이 노인 여성의 알츠하이머 치매관련 인자 및 인지 기능에 미치는 영향. 『한국체육과학회지』, 27(3): 1219-1228.
- 신정하(2014). 간호대학생의 치매 지식 조사. 조선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윤미진(2019). 간호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와 노인부양의식에 관한 연구. 『디지털융복합연구』, 17(11): 419-426.
- 이주연(2014). 중장년 여성의 치매인식도와 치매예방 교육요구도 조사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이지원(2020). 치매노인에 관한 무용학과 대학생의 태도인식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4): 137-151.
- _____ (2020). 치매대상자에 대한 무용교사의 언어표현과 태도, 그리고 의사소통 연구. 『한국무용교육학회지』, 31(2): 5-17.
- 제남주, 박미라, 양현주, 김수연(2019). 치매교육프로그램이 대학생의 치매에 대한 지식, 태도, 노인 부양의식, 인지정서적 공감에 미치는 효과.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0(4): 100-111.

논문투고일 2021. 02. 09.

심사일 2021. 02. 17.

심사완료일 2021. 02. 25.

A Study on the Perception of Dance Majors in College on Dance Education Specialized in Dementia

Lee, Ji-Won* · Jeon, Min-Soo**

Professo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 Lecturer, Korea National Sport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dentify the level of perception of dance majors in college on dance education specialized in dementia, and to provide basic data on the direction of specialized dance education and employment. The questions in the survey were divided into questions about perception of dementia and questions about dance education. In addition,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response results. Frequency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the Excel 2013 and SPSS 18.0 programs.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the perception of dementia among dance majors is somewhat higher than that of ordinary college students. We hope that the dance program specializing in dementia for college students will be expanded in the future. It is also expected that dance-specialized education programs related to dementia can be developed in a systematic and multi-layered direction.

Keywords: Perception of Dementia(치매 인식), Dance Education(무용교육), Dance Majors(무용전공생), Dementia(치매), Dance(무용)

